광화문 밝힌 '보현사 탑등'…"남북 평화 발원"

봉축위 · 연등회보존위 4월 22일
광화문광장서 봉축점등식 개최
탑등 좌우 반가사유상도 조성
생동감 더하는 조명 연출 특징
진우 스님 "재회 · 통일 빛 되길"

글=김내영 기자 · 사진=이현희 수습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보현사 탑등에서 세종대왕 동상까지 탑돌이를 하며 온 세상에 평화의 기운이 퍼지길 기원했다.

불기2570(2026)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남북 평화와 화합을 염원하는 북한의 묘향산 '보현사 탑등(燈)'이 서울 광화문광장을 환하게 밝혔다. 연등회가 국가무형유산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래 북한의 문화유산을 봉축등으로 선정·제작한 건 처음이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연등회보존위원회(위원장 진우 스님·조계종 총무원장)는 4월 22일 광화문광장에서 각 종단 주요 스님들과 불자 등 사부대중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축점등식을 개최했다. 봉축점등식은 우리 마음속 번뇌를 지혜로 밝히고, 부처님의 자비광명으로 세상의 평안을 기원하는 불교 고유의 전통 행사다. 매년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열리고 있다.

연등회 외국인 서포터즈인 LLF 프렌즈의 공연으로 시작된 이날 점등식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원로의원 일면 대종사,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능원 정사,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 총지종 통리원장 록경 정사 등 종단 대표들과 정동영 통일부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이헌승 국회정각회장, 김영배 국회정각회 수석부회장, 김의정 전국여성불자회장, 이길수 대한불교청년회장, 선민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장 등이 점등자로 나서 불법승 구호에 맞춰 '보현사 탑등'을 밝혔다.

'보현사 탑등'은 북한 묘향산 보현사 소재 8각 13층 석탑을 원형으로 삼아 전통 한지등으로 제작됐다. 높이는 19m에 달한다. 이번 봉축등은 세계평화와 남북 화합·공존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 고려시대 대표 석탑을 구현했다. 보현사 탑등 좌우에는 지혜와 자비를 상징하는 국보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높이 6m)이 조성돼 의미를 더했다. 특히 기존에는 단일 색상으로 점등됐지만, 올해는 생동감 있는 조명 연출을 통해 장엄함을 한층 강조했다.

봉축위원장 진우 스님은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라는 올해 봉축 표어에 맞춰 광화문을 수놓은 장엄한 불빛이 평화와 행복의 씨앗이 되길 기원했다. 진우 스님은 "고도로 발달한 AI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현대인의 마음은 더욱 각박해지고 고립감은 깊어만 가고 있다"며 "지식은 넘쳐나되 지혜는 부족하고 변화가 빠르되 온기는 식어가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불교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마음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대국민 선명상 보급'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이번 봉축등과 관련해서는 묘향산 보현사에서 승병을 일으켜 나라를 지켰던 서산 대사의 서원을 언급하며 "우리가 밝히는 자비의 빛이 휴전선을 넘어 묘향산 보현사 팔각십삼층석탑까지 비추는 '재회와 통일의 빛'이 되길 바란다"고 서원했다.

스님은 그러면서 "오늘의 등불은 나만을 위한 빛이 아니라 모두를 비추는 '공존의 빛'"이라며 "남과 북이 한마음으로 합장하는 그날을 발원하며, 이 등불이 세상의 편견과 미움을 녹여내길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20년 전 2005년 9월 제16차 남북장관급회담 당시 묘향산에 서 있던 순간을 회고했다. 정 장관은 "당시 평양에서는 남북장관급회담이 열리고 있었고, 베이징에서는 남·북,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한자리에 모여 6자 회담을 열고 있었다. 보현사에서 '묘향산의 향기가 평양을 넘어 베이징으로, 그리고 온 한반도로 퍼져나가 평화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며 "비록 (서산 대사의) 합동다례재는 기다림의 영역으로 남아 있지만, 회담은 결실을 보였고 그때 남과 북이 서로 주고받았던 추도사와 서신 속에 '우리는 본래 하나'라는 변치 않는 진리가 흐르고 있다"고 역설했다.



참석 대중들이 삼귀의와 반야심경을 봉독하고 있다.

정 장관은 "지금 잠시 멈춰 서 있지만 멈춤이 곧 포기는 아니다. 정부는 부처님의 '자리이타' 정신을 나침반 삼아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며 "폐허가 된 남북관계 위에도 신뢰라는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 '한반도 평화공존'의 새 아침을 반드시 열겠다"고 다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혜로운 이가 마음을 다스리듯 동체대비의 정신으로 시민의 삶을 잘 살피고, 일상서 마주하는 크고 작은 불편을 덜어 안락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축원을 통해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한반도 전역을 두루 비춰 화합과 상생의 길로 나아가길 발원했다.

끝으로 참석 대중은 석가모니불 정근과 함께 보현사 탑등에서 세종대왕 동상까지, 분단의 아픔을 딛고 온 세상에 평화의 기운이 퍼지길 기원하는 탑돌이를 펼쳐 장관을 이뤘다.

광화문 점등식을 시작으로 4월 22일부터 5월 25일까지 서울 전역에 약 5만 개의 봉축 가로연등이 부처님오신날의 의미를 환하게 비출 예정이다. 부처님오신날을 축하하는 연등회 행사는 5월 16~17일 서울 일원에 열리며, 전통등 전시 등 다채로운 봉축행사가 이어진다.

진우 스님 "마음 평안해야 지혜 나와"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에
"품격 있는 도정 활동" 격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에게 "내 안의 욕심을 내려놓을 때 어떤 것이든 담아낼 수 있다"며 매사에 평상심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진우 스님은 4월 20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추미애 후보의 예방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스님은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본래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한다"며 "어떻게 보면 상대를 상대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은 본인 스스로를 상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스님은 "지나친 욕심을 자제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며 "마음이 넉넉해지고 여유가 생겨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품격 있는 도정 활동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김내영 기자

종회의원 후보 용주 스님 '사실상 당선'

중선위, '자격 이상 없음' 결정
5월 7일 은해사 육화원서 '확정'



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해사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에 입후보한 용주 스님의 자격에 '이상 없음'이 결정되면서 사실상 당선을 확정지었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태성 스님)는 4월 21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432차 회의를 열고 종회의원 보궐선거에 입후보한 용주 스님에 대한 자격 심사를 진행한 결과 '자격 이상 없음'을 결정했다. 기호 2번으로 입후보했던 선지 스님은 4월 20일 후보 사퇴했다.

이로써 단독 후보인 용주 스님은 '중앙종회의원 선거에 있어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 수가 선출정수 이내인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는 선거법 제74조 2항에 의거, 5월 7일 오후 1시 은해사 육화원에서 개최되는 선거에서 당선이 확정된다.

김내영 기자



취임 1300일 맞은 진우 스님 "한국불교 중흥" 108배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취임 1300일을 맞아 한국불교 중흥과 수행 전통 확립의 서원을 다시 한번 다졌다. 진우 스님은 4월 19일 오전 8시 30분 서울 봉은사 대웅전에서 108배를 올렸다. 진우 스님은 취임 이후 매일 108배 수행을 이어오며 한국불교 중흥을 발원해 왔다. 108배에는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과 총무원 미래본부 사무총장 일감 스님, 봉은사 부주지 각진 스님, 총무원 사서실장 남전 스님과 봉은사 사부대중 100여 명이 함께했다.

글=김내영 기자 · 사진 제공=조계종

2028 태화강국제정원박람회 성공 유치 기원

불기 2570년(2026) 태화강연등축제 · 국제 사찰음식 문화 축제

울산태화가람대축제



볼거리
- 부처님 이운식
- 장엄등 전시
- 청춘극락콘서트
- 봉축법요식
- 선재스님과 명천스님의 쿠킹콘서트

즐길거리
- 사찰음식 체험 및 전시
- 만발공양
- 붓다존 체험 프로그램
- 명상 힐링존
- 제등행렬

2026년 5월 8일(금) ~ 5월 10일(일) (3일간)

태화강국가정원 남구 둔치

주최 사단법인 울산불교종단연합회 주관 태화강연등축제봉행위원회

후원 영축총림통도사, 조계종울산사암연합회, 사단법인 울산광역시불교신도회, (사)태화복합문화공간만디, 태고종울산교구, 천태종정광사, 원효종울산교구, 진각종, BBS울산불교방송, BTN불교TV, UBC울산방송, 울산 BNK 경남은행